

<번역 노트>

요한계시록 1:14상반절과 21:3 번역을 위한 새로운 제안들

배재욱*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에게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위대한 지혜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쉽고 정확한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발상의 위대한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대한성서공회가 다음 세대 독자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성경 번역을 기획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시도가 당장은 어떤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흐름이 결국은 학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독자들이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짧은 이 글에서 두 가지 형태의 번역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말 성경이 직역을 해도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할 만한데 주석적인 번역을 하여 독자의 탐구열을 빼앗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헬라어 문장이 애매하여 문법적인 해석과 아울러 주석적인 번역이 필요한 번역이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번역을 위한 시도에 동의하여 신학 수업을 하면서 간간히 부딪히는 원문에 대한 문제들을 메모하였다가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동참일 것 같아 필자는 이번에 그런 의도로 작은 번역 문제 두 가지를 정리했다.

1. 직역 중심의 번역

“요한계시록 21:3에서 후대 사본인 P 051^s 1006 1611 등은 λαός(‘라오스’,

*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백성’)를 사용하지만 보다 더 고대적이고 중요한 사본인 \aleph A 046 b2030 등은 $\lambda\alpha\omicron\iota$ (‘라오이’, ‘백성들’)를 사용한다. 본문 사본의 비중으로 보아 $\lambda\alpha\omicron\iota$ 가 원래적인 표현이라고 본다.¹⁾ 그러나 이 구절에서 $\lambda\alpha\acute{o}\varsigma$ 로 본문을 채택하든 $\lambda\alpha\omicron\iota$ 로 채택하든 사본의 비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경 번역자들과 신학자들을 긴장시킨다. 요한계시록 저자가 “단수형 $\lambda\alpha\acute{o}\varsigma$ 대신 복수형인 $\lambda\alpha\omicron\iota$ 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를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시키지 않고 온 열방을 향해 확장하는 우주론적인 구원에 대한 열망을 암시한다.”²⁾는 점에서 이 구절에서 $\lambda\alpha\acute{o}\varsigma$ 가 아닌 $\lambda\alpha\omicron\iota$ 가 원본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 저자의 집필의도와 그의 신학에 더 적절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lambda\alpha\omicron\iota$ 를 사용한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번역본에서 살려야 한다고 본다. 한국어 ‘백성’은 단수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복수의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이라고 번역해도 된다. 이렇게 $\lambda\alpha\omicron\iota$ 를 그냥 ‘백성’이라고 번역하면 원문 비평 문제도 큰 문제가 없이 넘어 갈 수 있어 일석이조란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성경 번역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 ‘단수’가 가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제한적인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기에 단수 $\lambda\alpha\acute{o}\varsigma$ 가 가지는 인상(印象, image)이 유대인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로 제한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자가 추구하는 우주론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본문 속에서 찾는 데 필요한 $\lambda\alpha\omicron\iota$ 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이 때문에 한국어 어법에는 좀 어긋나지만 이런 경우에는 헬라이어 원어 성경이 함축하고 있는 우주론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lambda\alpha\omicron\iota$ 를 ‘백성들’로 번역해야 한다고 본다.³⁾

1)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을 묻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90.

2)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 190.

3) 이 번역 노트에서는 현재 성경 번역의 대부분의 추세에 따라, 그리고 한글 신약성경에서 한 번도 ‘국민’이나 ‘국민들’이 사용되지 않아, $\lambda\alpha\acute{o}\varsigma$ 나 $\lambda\alpha\omicron\iota$ 를 ‘백성’ 또는 ‘백성들’로 번역하지만, 앞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lambda\alpha\acute{o}\varsigma$ 와 $\lambda\alpha\omicron\iota$ 를 ‘백성’과 ‘백성들’보다는 현대 한국어로 사용되는 ‘국민’ 그리고 ‘국민들’로 번역하는 것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위해서 더욱 좋을 것 같다. 그것은 ‘백성’이나 ‘백성들’이란 말이 고대와 근대시대의 문헌이나 성경 안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개역개정판은 ‘국민’이란 말을 10번 사용(창 25:23; 출 34:10; 신 4:33; 왕상 14:24; 16:15; 21:24; 대하 23:17; 잠 24:24; 렘 49:31; 단 9:6)하지만 신약성경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 창세기 25:23에서 ‘고임’(גוי)을 ‘국민’으로 신명기 4:33은 ‘압’(אֲמ)을 ‘국민’으로 번역한다. 히브리어 ‘고임’이나 ‘압’은 더 많은 경우에 ‘백성’이나 ‘백성들’로 번역된다. 이런 현상은 전체 번역을 통괄하는 시스템 타워의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조적이 없어, 번역자들이 제각각 자기 기준에 맞추어 번역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개역개정판 창세기 10:5에서 ‘고이’(גוי)의 복수형 ‘고임’(גוים)이 ‘백성’으로 번역되고 10:32에서는 ‘고임’이 두 번이나 ‘백성들’로 번역된다. 그리고 신명기 27:16ff.에 나타나는 구절들에서 ‘모든 백성’으로 번역되는 ‘쿨-하암’(קול-האם)은 단수형 명사 ‘암’(אם)앞에 ‘전체’(‘das Ganze’, ‘die Gesamtheit’)란 뜻을 가진 보통명사 ‘쿨’(קול)의 연계형인 ‘쿨’(קול)을 붙여 집합체로서의 전체를 표시한다. 창세기 10:5와 10:32에서 ‘고임’이 ‘백성’ 또는 ‘백성들’로 번역되는 것과는 다르게 신명기 32:8에서 ‘고임’은 ‘민족들’로 번역되고 ‘암’의 복수형 ‘아뎜’(אמנים)이 ‘백성들’이란 말로 번역된다. 위에서와 같이 구약성경 히브리어 번역에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구약성경에서 ‘백성’이나 ‘백성들’에 대한 번역이 뚜렷한 번역 원칙에 의하여 진행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현상이 신약성경 번역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요한계시록 10:11에서 ἐπὶ λαοῖς καὶ ἔθνεσιν καὶ γλώσσαις καὶ βασιλευσιν πολλοῖς(‘에피 라오스 카이 에트네신 카이 그릇사이스 카이 바실류신 폴로이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란 말로 번역된다. 10:11에 나타나는 문장인 ἐπὶ λαοῖς καὶ ἔθνεσιν(‘에피 라오이스 카이 에트네신’)에서 개역개정판은 ‘많은 백성과 나라[···]에게’로 번역함으로써 λαός의 복수 여격을 단수 여격으로 번역한다. 이 구절과는 대조되게 11:9에서는 복수형인 ἐκ τῶν λαῶν(‘에크 톤 라온’)을 ‘백성들 [···] 중에서’이란 복수형으로 번역함으로써 λαῶν(‘라온’)을 복수로 번역한다.

마태복음 15:8에서 단수 명사 ὁ λαὸς οὗτος(‘호 라오스 후토스’)에서 λαός는 ‘백성’, 즉 단수로 번역하지만 13:15의 ἡ καρδία τοῦ λαοῦ τούτου(‘헤 카르디아 투 라우 투 라우 투투’)를 ‘이 백성들의 마음’으로 번역함으로써 단수 속격 명사 λαοῦ(‘라우’)를 복수 속격으로 번역하고 있다. 마태복음 15:8에서는 단수 명사 λαός를 단수로 번역하고 13:15에서는 단수 속격 명사 λαοῦ를 ‘백성들의’란 복수 속격으로 번역한다. 마가복음 15:6에서는 λαός가 나오지 않는데, 인칭대명사 삼인칭 복수 여격인 αὐτοῖς(‘아우토이스’)의 영향 때문인지 개역개정판은 복수 주격인 ‘백성들’이란 말을 주어로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성경의 번역에서 개역개정판의 경우에 ‘백성’ 혹은 ‘백성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번역할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수를 한국어 단수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복수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 반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 복수를 한국어 단수나 복수로 번역하기도 한다. 또한 단수는 단수로, 복수는 복수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수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떤 경우는 단수로 어떤 경우는 복수로, 그 반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

복수가 어떤 경우는 단수 어떤 경우는 복수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원칙이 결여된 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 이런 현상이 필자의 생각에는 성경 번역에서 한국어 ‘백성’이 집합명사란 사실을 인지하고 모든 경우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수나 복수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모두 단수로 번역한 사람도 있고, 한국어에도 ‘백성들’이란 복수형이 심심찮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실생활에서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맥에 따라 ‘백성’ 혹은 ‘백성들’로 번역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칙이 분명하지 않아 독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말에도 단수형인 ‘백성’도 사용되지만 ‘백성들’이란 복수형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λαός*의 복수형인 *λαοί*의 번역어로 ‘백성들’ (또는 현대 한국어로 ‘국민들’)이란 복수형을 사용해도 한국어 문장 구성에서 별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이병주는 그의 작품 『지리산』에서 단수형 ‘백성’과 복수형 ‘백성들’을 함께 사용한다. 이병주의 글에서 보면 문맥상 둘 다 집합 명사인 ‘백성’을 지칭하지만 그는 ‘백성’과 ‘백성들’ 둘 모두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망국한을 안고 살아온 백성인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오죽 하겠나.”⁴⁾ 한국어 사전에서 보면 ‘사민평등’(四民平等)이란 말을 “사농공상의 모든 백성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일”이라고 해석한다.⁵⁾ 그러나 ‘민심이 천심’(天心)이란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길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⁶⁾ 이와 같이 한국어 사전에서도 ‘백성’의 복수형 ‘백성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라도 언어는 발전하기 마련이다. 지금 이 작은 문제인 ‘백성’과 ‘백성들’에 관한 문제에서 실생활에서 이미 사용되고 오래 전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도 이미 수없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발전한다. 언어 발전 단계에서 때때로 그 원칙과는 별개로 사용되어 그것이 새로운 원칙이 되는 언어의 실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문제를 원어에 따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이런 이유로 요한계시록 21:3에서 단수인 *λαός* 대신 복수형인 *λαοί*를 사용하여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나타낸다. 한국어 ‘백성’은 단수의 뜻과 아울러 복수의 뜻도 아울러 가지므로 *λαοί*를 단수인 ‘백성’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λαοί*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한다는 의미

4) 이것에 대하여 다음 문헌을 보라. 이병주, 『지리산』, 서울: 한길사, 2006, 37.

5) 민중서림편집국, 『에센스국어사전』(서울: 민중서림, ⁵2003), 1149.

6) 민중서림편집국, 『에센스국어사전』, 879.

에서 ‘백성들’로 번역하는 것이 21:3에서 요한계시록 저자의 의도에 비추어 볼 때 옳다고 본다.⁷⁾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λαοί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가지는 깊은 연대감 속에서 모든 애통과 괴로움이 해결된다(참조. 계 21:4).”⁸⁾는 구원론의 의미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을 향해 열려 있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인 세상 모든 열방의 ‘백성들’(λαοί)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원어 해석을 통해 요한계시록 저자의 신학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이 때 바른 신학 바탕을 세울 수 있고 바른 신학의 터전 위에서 한국교회는 굳건해질 것이다.

2. 접속사 καί(‘카이’)해석에서 주석적인 설명이 필요한 번역

요한계시록 1:14상반절은 인자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고 묘사한다. 동서양 모든 지역에서 노인이 되면 머리털이 희게 변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실이다. 동양의 사상에서 “머리가 희다는 말은 노인에 대한 고대인들의 판단”⁹⁾이 내포되어 있다. 아우네(David E. Aune)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고대 근동의 노인들에 대한 태도와 일치하는 이 은유는 존경, 영예, 지혜, 높은 사회적 신분과 같은 개념들을 전달한다.”¹⁰⁾고 지적한다.

14상반절에서 καί로 연결되는 문장을 어떻게 번역하는가는 καί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ἡ δὲ κεφαλὴ αὐτοῦ καὶ αἱ τρίχες(‘헤 데 켈할레 아우투 카이 하이 트리헤스’)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러나 그의 머리 그리고 그 머리털’이지만 이 문장에 나타나는 접속사 καί를 병렬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모호해진다.”¹¹⁾ 필자의 생각에는 “καί를 병렬적인 접속사로 보기보다는 ἡ κεφαλὴ(‘헤 켈할레’)를 설명하는 접속사로 보는 것이 좋다.”¹²⁾고 판단된다. 마태복음 10:30과 누가복음 7:38 등에서 ‘머리털’로 번역되는

7) 그렇지만 성경을 번역하여 예배에 사용되는 경우엔 이 구절에 관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 이 구절에서 λαοί가 한 민족에게 속한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 보다는 ‘세상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8)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 190.

9) Ibid., 99.

10) David E. Aune, *Revelation 1-5*, WBC 52A (Dallas, Texas: World Books Publisher, 1997), 데이비드 E. 아우네, 『요한계시록』 1권,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3), 461.

11)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 99.

12) Ibid., 99.

αἱ τρίχες τῆς κεφαλῆς(‘하이 트릭헤스 테스 켈할레스’)와 같은 의미로 ἡ δὲ κεφαλὴ αὐτοῦ καὶ αἱ τρίχες(‘헤 데 켈할레 아우투 카이 하이 트릭헤스’)가 사용되었다고 본다.¹³⁾ 그래서 καὶ를 병렬적인 접속사로 보지 않고 설명하는 접속사로 이해한다면¹⁴⁾ ἡ δὲ κεφαλὴ αὐτοῦ καὶ αἱ τρίχες λευκαὶ ὡς ἔριον λευκὸν ὡς χιών(‘헤 데 켈할레 아우투 카이 하이 트릭헤스 류카이 호스 에리온 류콘 호스 키온’)은 “그러나 그의 머리, 곧 그 머리털은 흰 양털이나 눈 같이 희었다”¹⁵⁾로 번역된다. 이러한 번역은 요한계시록 저자의 신학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접속사 καὶ가 늘 병렬적인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강조하는 용법으로 또는 설명하는 용법으로 사용되는 허다한 예를 볼 수 있듯이 이 구절에서 καὶ는 앞에 나오는 ἡ κεφαλὴ αὐτοῦ(‘헤 켈할레 아우투’)의 의미가 모호함을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ἡ κεφαλὴ αὐτοῦ를 보충하여 설명함으로써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만든다.

13) 한국어로 ‘머리’는 헬라이어 κεφαλὴ(켈할레)가 의미하는 ‘머리’(‘Haupt’, ‘head’)와 θρίξ(트릭스)가 의미하는 ‘털’(‘Haare’, ‘hair’)둘 다를 포괄하기도 하고 그 각각의 의미로도 아울러 사용된다. 그런데 ‘머리털’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지 않는 κεφαλὴ가 털을 의미하는 θρίξ와 함께 병렬로 나오면서 서술형 형용사 λευκαὶ(‘류카이’)와 함께 사용되어 ‘머리’(‘Haupt’, ‘head’)도 희고 털도 희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면 문체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ἡ κεφαλὴ αὐτοῦ καὶ αἱ τρίχες(‘헤 켈할레 아우투 카이 하이 트릭헤스’)를 αἱ τρίχες τῆς κεφαλῆς(‘하이 트릭헤스 테스 켈할레스’)와 같은 의미로 보아 간단히 “머리털”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머리, 곧 머리털”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14)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 99를 참조하라.

15) 이 번역은 필자의 사역이다. “머리털의 날개” 또는 “머리털의 하나하나의 오리”를 의미하는 ‘머리카락’과 다르게 ‘머리털’은 “머리털을 베어 신발을 삼다.” 또는 “머리털이 곧두서다.”란 글에서 보다시피 머리에 난 털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글학회, 『우리말 사전』, 한글학회 창립 100돌 기념판(서울: 어문각, 2008), 752; 국어국문학회, 『밀레니엄 새로 만든 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림, 2001), 857; 박용수, 『겨레말 용례사전』(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045를 보라. 요한계시록 1:14상반절에서 흰 양털과 눈 같았던 그의 머리, 즉 그 흰 머리털이 “머리털의 날개” 또는 “머리털의 하나하나의 오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αἱ τρίχες(‘하이 트릭헤스’)를 번역할 때 ἔριον λευκὸν(‘에리온 류콘’)이 ‘흰 양털’로 번역되므로 시적인 운율을 고려하여 ‘머리털’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시도인 것 같다. 14절 문장의 주동사가 12절 Καὶ ἐπιστρέψας εἶδον ἑπτὰ λυχνίας χρυσᾶς(‘카이 에피스트렉사스 에이돈 헵타 릭 호니아스 크뤼사스’)란 문장에 나오는 과거형 동사 εἶδον(‘에이돈’)이다. 그러므로 14절의 문장도 과거 시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므로 αἱ τρίχες λευκαὶ ὡς ἔριον λευκὸν ὡς χιών(‘하이 트릭헤스 호스 에리온 류콘 호스 키온’)이란 문장은 ‘그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눈처럼 희었다.’로 번역할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도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털을 지칭할 때 셀 수 있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의 의미하는 경우 외에는 ‘머리털’이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참조. 례 21:5).

3. 맺는 말

성경의 원문에 충실한 정확한 번역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본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도 그 의미가 모호하여 그 뜻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주석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현재 우리말 번역본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설명하는 문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번역본이 설명적이고 주석적이지만 동시에 원문이 애매한 경우에 때때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한국어 번역본에 격조 있는 직역 중심의 번역본이 없다는 현실이 신학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큰 아쉬운 점이다. 예배용 성경 번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어 번역에서도 RSV, NRS, 예루살렘 바이블(Jerusalem Bible), 독일어본의 엘버펠드 비벨(ELB), 쾰리히 비벨(Zürich Bibel) 같은 직역 중심의 번역이 필요하다고 본다.

직역 중심의 번역본이 필요하지만, 아울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목회자들이나, 평신도가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는 번역본도 나와야 하리라고 본다. 그것은 직역으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만 어떤 곳에서는 주석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맥도 있기 때문이다. 신학적으로 애매한 원문에서는 주석적인 해석을 내림으로 번역의 묘미를 살려주는 것이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밝혀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유 명사나 집합명사의 번역에서 대한성서공회 번역본에서 비단 $\lambda\acute{o}\varsigma$ 와 $\lambda\alpha\omicron\iota\acute{\iota}$ 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의 고유명사나 집합명사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문법적인 틀 속에 갇힌 사고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본다. 현 시대의 문학 작품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성경에서도 사용된다면 그 집합 명사를 사용함에서 분명한 지침을 세우고 그 지침에 따라 번역한다면 용어 사용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국어국문학회, 『밀레니엄 새로 만든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2001.
민중서림편집국, 『에센스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2003.
박용수, 『겨레말 용례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을 묻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한글학회, 『우리말 사전』, 한글학회 창립 100돌 기념판, 서울: 어문각, 2008.
Aune, David E., *Revelation 1-5*, WBC 52A, Dallas, Texas: World Books Publisher, 1997; 아우네 데이비드 E./김철 역, 『요한계시록』 1권, 서울: 솔로몬, 2003.